



1. 세이지그린티에서 맛볼 수 있는 녹차 휘낭세(사진 왼쪽)와 진저에일소다에 가루녹차와 녹차 얼음을 동동 띄워 만든 브라우니 소다(사진 오른쪽).
2.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심플한 콘크리트 벽과 2천여 개의 라운드 스테인리스 장식이 모던한 느낌을 더한다.
3. 깔끔하게 포장된 깨코끼가 앙증맞다.
4. 그린프로스트 위에 녹차 아이스크림을 올린 그린 플로팅(사진 앞)은 세이지그린티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메뉴중 하나다. 세이지그린티가 선별한 잎녹차를 맛볼 수 있는 세이지글래식잎차(사진 뒤)도 있다.
5. 세이지는 '작지만 그윽하다', '작지만 큰 것이다' 란 뜻을 가지고 있다.

녹차 전문점 세이지그린티

그린빛 녹차의 세련된 변신

글 · 김영주 기자 | 사진 · 정영주

유행의 거리 이대 앞에 젊은 감각으로 승부하는 녹차 전문점 세이지그린티가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찻집이 고풍스런 전통 찻집을 떠올리게 한다면 세이지그린티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의 현대식 녹차 테이크 아웃 전문점이다. 일부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던 녹차 음료를 전문화시켜 녹차라는 소재를 고객들에게 강하게 전하고 있다. 신선한 녹차 음료와 집에서 만든 것처럼 편안한 느낌의 베이커리 제품이 새로운 것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유혹한다.

녹차 음료는 세이지그린티가 엄격히 선별한 최상급 잎녹차를 직접 매장에서 티백에 담아 제공하는 클래식 라인과 따뜻한 우유와 함께하는 라떼 그린 등의 핫 라인, 아이스크림이 올려진 시원한 음

료 플로팅 등 5개 라인에 총 20여 종이 넘는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깨코끼나 무화과 타르트, 휘낭세, 스노우 볼 등 아기자기한 모양에 깔끔하게 포장된 베이커리 제품도 고객을 사로잡는다.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세이지그린티 매장은 연중 기획 전시가 열리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매장에서 차를 마시는 즐거움과 예술을 감상하는 즐거움까지 함께 제공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세이지그린티의 욕심이 곳곳에 묻어있다.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기억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세이지그린티.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바뀐 녹차의 변신이 기대된다. **B**

TEL : 02-6335-1587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60-9호